

갯벌 체험환경교육의 지리적 접근

박상희(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1. 서론

오늘날은 과히 ‘환경의 세기’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에서 환경을 화두로 하여, 환경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환경교육이라 지칭하고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교육의 개념이나 목적은 환경을 인식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시대마다 달라져왔다. 이에 따라 초기의 환경교육이 환경 및 환경무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획득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날의 환경교육은 가치, 태도의 함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도덕적, 심미적 차원의 발달을 위해 보다 정의적 영역에 중점을 두는 환경교육이 강도되기 시작하였고, 태도나 가치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험환경교육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체험환경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체험환경교육은 주변의 자연환경 및 시설물을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종 갯벌은 오감체험을 통해 갯벌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생명들의 유기적 관계를 현장에서 손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또한 갯벌주변에 대한 체험과 탐조활동의 적절한 병행이 가능하므로 체험환경교육의 장으로서 그 활용성과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갯벌체험 프로그램이 대개의 경우 관광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어폐류의 패집체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체험 대상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경시하게 만드는 극악한 폐단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국내 갯벌에서의 체험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여건이나 안내 홍보체제 그리고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체험환경교육이 호기심을 자극하여 나아가 자연을 이해하면서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갯벌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올바른 개발과 정착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체험환경교육 및 갯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내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환경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생물학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갯벌 체험환경교육에 지리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효과적인 갯벌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환경교육 및 체험환경교육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현재 체험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갯벌에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요약

국내 갯벌 체험환경교육에서 지리교과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7종의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내 해안지형을 분석하였다.

모든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해안 특색을 동해안, 황해안, 남해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각의 해안에서 발달할 수 있는 지형을 퇴적지형과 침식지형으로 구분하였다. 갯벌을 기술함에 있어 교과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2단원 해안지형에서 퇴적지형의 하나로 갯벌이 발달 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과 갯벌의 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환경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간척 사업과 관련하여 5단원에서 갯벌의 기능, 간척을 통한 토지이용의 변화 그리고 간척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국내 갯벌 체험환경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갯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갯벌 체험장의 교육내용을 살펴본 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갯벌 체험환경교육을 조사하였다. 갯벌정보시스템에서는 총 36개의 갯벌 체험장 사이트(4곳은 갯벌 체험을 하지 않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중 갯벌 안내자가 함께하며 갯벌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순수한 체험학습이라 할 수 있는 곳은 단지 4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체험장들은 갯벌 체험학습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조개잡이 체험으로 갯벌 체험환경학습이라 볼 수 없는 곳이 많았다.

200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갯벌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들의 방문목적을 갯벌체험 및 해산물채취의 갯벌체험형, 해산물구입·식사·휴식의 해산물 구매/시식형, 자연경관 감상, 갯벌해수욕, 바다낚시 등의 레저활동형, 철새 등 관찰활동의 탐조·관찰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갯벌 방문객의 주된 방문 목적은 레저활동형 방문목적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갯벌체험형이 29.9%, 해산물 구매/시식형이 25.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직까지 갯벌지역에서의 활동은 체험이나 관찰, 교육 목적의 활동보다는 휴양 및 휴식 등을 주된 방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내 갯벌에서의 체험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여건이나 안내 홍보체제 그리고 갯벌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갯벌 체험학습을 대부분 어촌계, 개인, 그리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전국의 갯벌체험장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체험내용 또한 바지락채취나 머드체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회 수용가능 인원을 많게는 1,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갯벌 훼손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갯벌스포츠 활동과 탐방객의 무분별한 생물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갯벌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갯벌체험활동 관리지침’, ‘청소년 습지연구 공모전’, ‘갯벌생태 안내인 교육’ 및 ‘시민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면으로 갯벌의 보전·관리를 모색해오고 있다. 그 중 하나로 2007년부터 ‘갯벌사랑 릴레이 체험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갯벌체험 프로그램의 보급 활성화로 소중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체험활동이 직접 생물 채취를 통한 관찰에서 벗어나 간접적인 관찰을 통해 갯벌에 접근하고 있다. 주요 체험 내용은 갯벌 생물 및 식물의 관찰이며, 최근에는 갯벌의 오염과 관련하여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과 같은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현재 국내에 갯벌 체험학습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갯벌체험 행사는 갯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체험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갯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갯벌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갯벌생태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갯벌체험의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아직까지 갯벌 생물 관찰에 그치고 있어 갯벌 체험환경 학습에 자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갯벌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갯벌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생명들의 유기적 관계 관찰이 가능하고, 또한 갯벌 주변에 대한 체험과 탐조활동의 적절한 병행이 가능하므로, 갯벌 체험환경을 통해 단순히 ‘갯벌’이라는 특이한 공간의 체험이 아닌 염습지, 강하구, 상부조 간대, 어촌, 해양문화 등을 이해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갯벌이 체험환경교육의 장으로서 그 활용성과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갯벌체험 프로그램이 대개의 경우 관광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어폐류의 채집체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적인 갯벌 체험환경교육을 위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함을 제안한다. 1단계는 간접학습 프로그램으로 직접체험학습을 하기 전 갯벌의 역할, 환경, 생태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로 직접체험과 연계된 강의식학습은 지식과 환경적 감수성 측면에서 더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역사 및 지리적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여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단계는 직접체험 프로그램으로 갯벌의 자연자원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관찰하는 단계로 생물자원의 보고인 갯벌과 주변 자연자원을 체험하는 것은 여타 체험학습과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가 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사전 교육이 요구된다. 갯벌 속으로 직접 들어가 갯벌의 흙을 느낌으로써 갯벌의 형성 및 자연정화 기능을 체험할 수 있으며, 갯벌의 어획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로부터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체험하고 식량 자원 보유고로서 갯벌의 기능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조류 및 갯벌 속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접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갯벌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사회학습은 지역사회의 문화·사회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단계로, 갯벌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어촌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지역의 발전 과정과,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척과 관련하여 지형 및 지역 주민 생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

3. 결론

환경교육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갯벌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심미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갯벌에 대한 환경교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갯벌에 대한 체험환경교육이 학교, 그리고 시민단체와 지방 정부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주 특별한 이유와 일회적 사업, 재정수입의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것이 환경교육의 주요 가치와 일치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갯벌에 대한 쉽고 다양한 지식과 현장감 있는 정보들이 극히 드물어 일반인들의 갯벌 기행이나 탐사는 일회성 여가에 불과한 인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갯벌생태기행을 상품화하는 여행사의 급증이 대변하고 있다.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장 확실한 방법이기도하다. 또한 갯벌 환경교육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대상에게도 실현 가능하다는 큰 장점으로 지니고 있으며,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생태계의 중요성과 갯벌의 풍부한 생명력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환경감수성을 함양시켜 환경을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게 하고 친환경적인 태도로 변화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일회성 여가의 인식을 주고 있는 갯벌체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갯벌 체험환경교육의 시도와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일선 교사, 환경교육단체, 지역 내 대학 등의 정보소 등 구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연구와 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 행정, 재정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갯벌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양한 갯벌 체험환경교육의 시도와 지속적인 활동 및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